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와 부모와의 관계 만족, 행복 및 적응과의 관계*

조 설 애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의 내용과 구조를 탐색하고, 지각한 부모의 의미가 부모와의 관계 만족과 행복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예비 연구에서 대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지각한 부모의 의미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답변을 수집해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연구에서는 대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에서 선정한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는 총 4개 요인으로 요인 1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요인 4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다. 부모의 의미의 각 하위 요인들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 적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의미 중 요인 2와 요인 3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 1, 요인 2, 요인 3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가 가지는 긍정적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부모의 의미를 생성하고 증진시키는 중재를 통해 대학생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높이고, 적응과 행복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부모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관계 만족

* 이 논문은 조설애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국연구재단의 BK 21 플러스 [고령 사회 대비 웰에이징 행복심리디자이너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F16HR31D1802).

† 교신저자: 정영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E-mail: yschoong@pusan.ac.kr

부모는 태어나 가장 처음 경험하는 대인 관계이자 가장 오랜 시간동안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Bornstein & Cheah, 2006). 부모는 전생애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Shaw, Krause, Chatter, Connell & Ingersoll-Dayton, 2004), 특히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Noller & Callan, 1991). Goldstein과 Heaven(2000)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각보다는 주관적인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이 원만한 친구 관계(Arshat, 2013), 대학 적응(Mattanah, Lopez, & Govern, 2011), 주관적 안녕감(Kocayoruk, 2012), 심리적 건강(Goldstein & Heaven, 2000)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부모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 자녀의 행복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 유형,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대, 부모의 통제 등의 주제로 연구가 되어왔다(채경선, 황현주, 2014;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Parke & Ladd, 2016; Petts, 2014; Steinberg, 2001).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자녀의 부모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부모의 의미(meanings of parent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Baumeister(1991)는 의미(meaning)란 '대상, 사건, 또는 대인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의미란 '부모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의 내용은 무엇일까? 부모의 의미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거의 없지만, 크게 두 가지에서 부모의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생애 주기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화이며, 두 번째는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먼저 생애 주기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의미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생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하는 시기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이다(Erikson, 1963; Havighurst, 1972).

자녀가 유아동기일 때,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며,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여러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Noack, & Buhl, 2004). 즉, 아동기에 부모는 돌봄 제공자(caregiver)로 자녀는 돌봄 수혜자(caretaker)로서 역할이 중심이 된다(Cooney, 1997). 그러나 청년이 된 자녀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려는 자율성(autonomy)을 획득하고자 한다(Kagitcibasi, 2013). 그러므로 부모는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력자(facilitator)로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Cooney, 1997). 자녀 또한 부모에게 돌봄을 받기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대등한 성인 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Birditt, Fingerman, Lefkowitz, & Dush, 2008).

대학생 자녀와 부모가 전환기에 맞추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Amato, 1994; Umberson, 1992).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긴장감을 유발하고(Montemayor, 1982),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Parke, 1988). 자녀는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구축해야 함으로 어려움을 느끼고(Seiffge-

Krenke, 2006), 부모 또한 급증한 자녀의 자율성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Allen & Stoltenberg, 1995). 이 시기 자녀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더 많은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간섭을 거부하면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부모는 달라진 자녀의 행동에 혼란감과 실망감을 경험하게 된다(김혜은, 이진순, 2006). 부모는 관습적인 규칙으로 자녀의 품행을 관리하고자하지만 자녀는 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로 더욱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Smetana & Daddis, 2002).

전환기의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가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하면 대학생 자녀는 지각된 건강한 자율성을 획득하고 독립된 성인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후 성인기로의 성공적 이행과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Mattanah, Hancock, & Brand, 2004). 이렇게 대학생 자녀와 중년 부모가 성인 대 성인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기임을 고려해보면(Windle, 1992),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는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독립된 성인으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의 독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 한국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상진(1994)은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의 독특성을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부자유친성정은 부모-자녀의 자애와 효를 바탕으로 한 감정과 의식의 동일체적

(同一體, oneness) 친애관계를 뜻한다(최상진, 1994).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1994)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하기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고 그 응답들을 분석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5개 요인으로 유친, 불신, 혈육의식, 희생, 근심이 포함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녀가 지각하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고 친하며 자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죄송하며 밋거나 원망스럽고 부담을 주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1994)의 연구가 자녀가 지각한 부모 마음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 것과 달리 이장주와 최상진(2003)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가 가깝고 고마운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여 부자유친성정적도를 개발하였는데, 두 개의 하위 요인 '일체감과 '헌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체감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믿음과 지지의 정도를 반영하며, 헌신성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희생과 양보의 정도를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는 부모를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해주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개관하면서 한국인만의 토착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들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하고 자애롭고 책임감을 가지며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자녀로 인해 자부심을 얻는 동시에 자녀의 성취에 대해 기대하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반면 자녀는 부모의 희생에 대해 죄송함과 감사함을 가지는 동시에 의존

하기도 하고, 성취동기를 가지며 효도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갖는 의미는 사랑하고, 나를 믿고 지지해주며, 희생하고 양보해주며, 죄송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 반면 보답하고 싶은 대상의 의미로 매우 복잡함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이 부모의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부자유친성정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하기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거나, 또 부모가 고맙고 가까운 상황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대학생 자녀가 실제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의미의 다양한 측면을 두루 살펴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4)의 연구도 자녀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부모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관계 자체의 특징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의 부모-자녀 관계의 재정립의 중요성과 부모의 의미에 대한 연구의 부족을 바탕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가 부모와의 관계 만족, 적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앞서 애착, 양육 태도 등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므로 (Goldstein과 Heaven, 2000; Noller & Callan, 1991), 부모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의미 또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

의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력을 탐색하려는 시도로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개인의 행복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부모에 대한 지각과 관계 만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와의 관계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uerrero, 2008; Valley & Guerrero, 2012). 그러므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도 부모와의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는 개인의 행복과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세 가지 지표로서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제안하면서 행복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한 주관적인 것으로 보았다.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요소인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와, 인지적 요소인 '삶에 대한 만족'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 긍정 정서가 있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정 정서가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상미, 방희정, 2013; 오영진, 박봉순, 2011; Fosco, Caruthers & Dishion, 2012). 지각한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대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김혜원, 2013)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영남, 2014). 이런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 또한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우리의 재능이나 성격 혹은 가치와 같은 내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웰빙 개념이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Ryff(1989)는 인간의 강점이나 개인적 노력 및 성장 등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면서 전생애에 걸친 이런 긍정적 기능이 웰빙의 기초라고 보았다. 심리적 안녕감은 6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수용 및 긍정적 평가인 '자기 수용',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지속적 계발에 대한 느낌인 '개인적 성장',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환경의 통제',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이 있는 '자율성',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따뜻하고 만족스러우며 신뢰가 있는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가 있다.

부모에 대한 지각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Love & Murdock, 2004). 또한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은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Petts, 201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윤영, 정문자,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울은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보건복지부, 2005), 현대 사회의 대학생은 취업, 대인관계, 가치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감이 증가하여 특히 우울에 취약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박광희, 2008; Rutter, 1989). 따라서 부모의 의미가 대학생의 적응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하나의 지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과 우울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를 보면, 부모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낮았으며(최인재, 2007),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의 우울이 낮았다(Barrett & Turner, 2005). 반면 부모와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대학생들은 우울이 높았고(오영희, 2007),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애착인 대학생들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임성문, 2006). 이런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부모의 의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미가 부모와의 관계 만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의 내

용과 구조는 무엇인가?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가 부모와의 관계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가 대학생의 적응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1.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가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3.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사전 연구

연구 대상

대학생의 부모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연구를 통해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부산시 소재 P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2, 3학년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141명(남 71명, 여 70명)이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총 반응 수는 665개로 1인당 평균반응 수는 4.71개였다.

수집한 답변들을 유사성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발달심리학 전문가 1인, 사회심리학 박사 1인, 발달심리학 전공 박사과정생 3인 등 총 5인의 평정자가 3번에 걸쳐 토의 후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 소 범주를 구분하고 분류하였다. 분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문항을 구성하여 2번에 걸쳐 합의 후 확정하였다. 확정된 예비 문항은 총 40개였다.

본 연구

연구 대상

부산시 소재 P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설문지를 배부 후 수거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총 327명(남 153명, 여 17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2.96세였다($SD=1.94$).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236명(72.2%), 불교 33명(10.1%), 기독교 39명(11.9%), 천주교 18명(5.5), 무응답이 1명이었다. 지각된 경제 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84명(25.7%), 보통이 185명(56.6%), 좋지 않다는 사람이 58명(17.7%)였다. 지각된 건강은 좋다는 사람이 190명(58.0%), 보통이 108명(33.0%),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29명(8.9%)이었다. 동거 형태를 살펴보면,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와 사는 사람이 134명(41.0%), 가족과 함께 산다는 사람이 193명(59.0%)였다.

측정 도구

부모의 의미

사전 연구에서 확정된 예비 문항 40개를 사용하였고,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

관계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부모 자녀 연구에서 사용된(안정신, 문정희, 정여진, 정영숙, 2015) '부모님과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물었으며, 10점 척도(1=불만족, 10=만족)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중 인지적 요인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 척도 SWLS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 (1985)이 개발하고 권석만(2008)이 번안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삶의 만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중 정서적 요인인 정서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서인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한국인의 행복척도 중 긍정 정서 형용사로는 '즐거움', '편안함', '행복함' 등 3문항, 부정 정서에는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 등 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1=전혀 느끼지 않았다, 5=항상 느꼈다), 긍정·부정 정서의 신뢰도는 각각 .78, .71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조운주(2002)가 재구성한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환경의 통제,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삶의 목표, 자기수용 등의 6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당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평정하며(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80이었다.

우울

한국판 CES-D(Center of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축약형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되었으며, 허만세, 박병선, 배성우(2015)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모든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등이 있으며 4점 척도로(1=극히 드물었다, 4=거의 대부분 그랬다) 평정하였다. 신뢰도는 .84이었다.

자료 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의 내용과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해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부모의 의미 요인을 확인한 다음, 부모와의 관계 만족,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미의 각 요인들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 구조 확인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기 전에,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미를 측정하는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였다. 왜도<3, 첨도<10 이하가 정규성에 적절하기 때문에 (Kline, 2011),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 1개

를 제거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부모의 의미 척도 최종 문항을 선정하고, 공통적인 요인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39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SPSS 23.0을 사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하였고, 요인 회전 방식은 사각회전 중 promax를 사용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지수는 .932으로 문항 간 상관이 적절하였으며, Bartlett 검증 결과 또한 적합하였다[$\chi^2(780)=6965.589, P<.001$].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은 8개 요인이었으나, 스크리도표(Scree plot)에서 확인한 결과 4개에서 6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요인을 추출할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변수를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에(Zwick & Velicer, 1986) 2문항 이하로 구성된 요인은 제외하였다. 두 개 요인에 부하된 경우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는 문항과, 공통성에서 .40 미만의 값을 가진 문항(Costello, 2009; Velicer & Fava, 1998) 또한 삭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 지수는 .938였고,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tlett 검증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chi^2(253)=4236.97, P<.001$]. 결과적으로 최종 문항은 23문항의 4개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62.72%를 설명하였다(표 1 참조). 요인별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50 이상이므로 타당하였지만, 공통분은 일부 문항이 .50 이하인 문항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요인당 문항의 수는 네 개 이상 또는 다섯 개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하고(장승민, 2015) 모든 요인은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갖는 문항이 3개 이상이면 바람직하며(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공통분이 .40까지는 보통(moderate)이므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Costello, 2009) 판단된다.

요인 1은 부모를 소중하고 사랑하며 고맙게 여기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원하며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으로,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부모를 성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내용으로,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부모를 존중하고 본받으며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내용으로,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부모와의 동일시 및 부모에 대한 부양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를 살펴보면, 1요인은 9.89, 2요인은 1.99, 3요인은 1.35, 4요인은 1.18이었으며, 요인별 설명량은 각각 43.00%, 8.66%, 5.88%, 5.16%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79부터 .90,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은 .47부터 .77 범위로 모두 양호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가 부모와의 관계 만족, 적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지각한 부모의 의미, 관계 만족 및 행복 간의 관계

지각한 부모의 의미, 부모와의 관계 만족 및 적응과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부모의 의미 4개 요인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의 의미와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의미 4개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와는

표 1. 부모의 의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공통분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	문항 계외신뢰도
요인 1.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6문항, Cronbach's $\alpha=.88$)							
35. 부모님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847				.730	.771	.853
31. 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832				.703	.666	.870
20. 부모님은 고맙고 감사한 분이다.	.789				.638	.766	.854
36. 부모님은 나의 존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다.	.722				.526	.729	.860
10.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다.	.716				.538	.682	.868
30.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거나 실망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626				.417	.598	.883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5문항, Cronbach's $\alpha=.83$)							
21. 부모님은 내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시고 의견을 존중해주시다.		.841			.712	.740	.766
39. 부모님은 내가 하고싶은대로 하게 해 주신다.		.762			.590	.675	.784
33.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R)		.717			.523	.653	.791
7. 부모님은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R)		.667			.484	.593	.808
12.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 (R)		.549			.402	.493	.833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8문항, Cronbach's $\alpha=.89$)							
9. 부모님은 내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분이다.			.798		.641	.730	.869
26. 부모님은 내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시다.			.788		.658	.769	.864
19. 부모님은 내게 본보기가 되고 인생을 가르쳐 주신다.			.761		.585	.687	.874
28. 부모님은 항상 힘과 의지가 되는 분들이다.			.758		.693	.738	.868
5. 부모님은 내게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다.			.689		.494	.618	.882
38. 부모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기뻐할 수 있다.			.689		.504	.666	.877
16. 부모님은 내 보호자며 안전한 울타리와 같다.			.620		.444	.598	.885
요인 4.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 (5문항, Cronbach's $\alpha=.79$)							
14. 부모님은 내 삶의 이유이자 내 모든 것이다.				.827	.699	.738	.698
13. 부모님은 내게 동반자같은 존재이다.				.729	.555	.613	.746
29. 부모님과 자식은 하나이다				.702	.502	.603	.747
22. 부모님이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다.				.558	.410	.473	.792
11.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이가 드시면 모셔야 한다.				.547	.401	.483	.783
고유치	9.89	1.99	1.35	1.18			
설명 변량(%)	43.00	8.66	5.88	5.16			
누적 설명 변량(%)	43.00	51.67	57.56	62.72			

(R)은 역채점 문항임

표 2. 부모의 의미 요인과 부모와의 관계 만족, 행복 및 적응과의 상관

	1. 부모의 의미 요인 1	2. 부모의 의미 요인 2	3. 부모의 의미 요인 3	4. 부모의 의미 요인 4	7. 삶의 만족	8. 긍정 정서	9. 부정 정서	10. 심리적 안녕감	11. 우울	12. 부모와의 관계 만족
2.	.47**									
3.	.70**	.60**								
4.	.60**	.40**	.67**							
7.	.30**	.31**	.40**	.29**						
8.	.29**	.32**	.38**	.26**	.54**					
9.	-.17**	-.30**	-.24**	-.12**	-.48**	-.42**				
10.	.28**	.44**	.38**	.24**	.58**	.48**	-.50**			
11.	-.25**	-.34**	-.29**	-.23**	-.44**	-.52**	.65**	-.53**		
12.	.61**	.67**	.71**	.53**	.36**	.37**	-.28**	.36**	-.33**	
<i>M(SD)</i>	4.61 (.50)	3.92 (.74)	4.09 (.66)	3.52 (.78)	3.25 (.68)	3.90 (.67)	2.80 (.90)	3.73 (.43)	1.55 (.46)	7.95 (1.66)

부모의 의미 요인 1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요인 4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임.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제시하였음
 * $p < .05$, ** $p < .01$

모두 정적 상관을,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부정 정서와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의미 4개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의미 요인들은 관계 만족과는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지각한 부모의 의미가 관계 만족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지각한 부모의 의미의 4개 하위 요인별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들의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각한 부모의 의미가 부모와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1단계에서 지각한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50.8% 설명하였다($R^2=.508$, $F(1, 325)=336.183$, $p < .001$). 2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추가되어 설명량은 8.8% 증가하여 부모와의 관계 만족의 5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596$, $F(2, 324)=239.132$, $p < .001$). 3단계에서는 부모의 의미

표 3. 부모와의 관계 만족에 대한 부모의 의미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			
	예측변인	β	t	R^2	ΔR^2	F
1	부모의 의미 요인 3	.713	18.335***	.508	.508***	336.183***
	부모의 의미 요인 3	.490	11.091***			
2	부모의 의미 요인 2	.371	8.387***	.596	.088***	239.132***
	부모의 의미 요인 3	.373	6.928***			
3	부모의 의미 요인 2	.355	8.144***			
	부모의 의미 요인 1	.180	3.683***	.609	.016***	170.125***

* $p < .05$, ** $p < .01$, *** $p < .001$

요인 1인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추가되어 설명량이 1.6% 증가하였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의 총 6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690$, $F(3, 323) = 170.125$, $p < .001$). 지각한 부모의 의미 요인 4인 밀착과 부양의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요인 모두가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냈다. 즉 부모를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존경하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부모의 의미 4개 하위 요인들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표 4 참조), 1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3인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의 1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164$, $F(1, 325) = 63.965$, $p < .001$), 2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2인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추가되어 설명량은 3.0% 증가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총 19.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193$, $F(2, 324) = 39.156$, $p < .001$). 따라서 지

각한 부모의 의미 하위 요인 4개 중 요인 3인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요인 2인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의 의미가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지각된 부모의 의미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의 18.9%를 설명하였다($R^2 = .189$, $F(1, 325) = 75.971$, $p < .001$). 2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추가되어, 설명량은 2.1% 증가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의 총 21.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210$, $F(2, 324) = 43.070$, $p < .001$). 부모의 의미 4개 요인 중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대상'과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의 두 요인만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7$, $p < .001$).

지각된 부모의 의미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6에 제시한대로, 1단계에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투입되어 우울의 1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118$, $F(1, 325) = 43.685$,

표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부모의 의미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	종속 변인		주관적 안녕감			
	예측변인	β	t	R^2	ΔR^2	F
1	부모의 의미 요인 3	.406	7.996***	.164	.164***	63.965***
2	부모의 의미 요인 3	.275	4.402***	.195	.030***	39.156***
	부모의 의미 요인 2	.218	3.486***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부모의 의미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인		심리적 안녕감			
	예측변인	β	t	R^2	ΔR^2	F
1	부모의 의미 요인 2	.435	8.716***	.189	.189***	75.971***
2	부모의 의미 요인 2	.327	5.296***	.210	.021**	43.070***
	부모의 의미 요인 3	.179	2.904**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우울에 대한 부모의 의미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인		우울			
	예측변인	β	t	R^2	ΔR^2	F
1	부모의 의미 요인 3	-.344	-6.609***	.118	.118***	43.685***
2	부모의 의미 요인 3	-.299	-5.584***	.129	.011***	24.067***
	부모의 의미 요인 2	-.114	-2.010*			

* $p < .05$, ** $p < .01$, *** $p < .001$

$p < .001$]. 2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추가되었고, 추가적인 설명량은 1.1%였다($R = .129$, $F(2, 324) = 24.067$, $p < .001$). 종합해보면, 지각한 부모의 의미 요인 4개 중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과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만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 우울은 낮추는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

한 대학생 시기를 대상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를 탐색하고 부모의 의미가 부모와의 관계 만족과 행복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는 사랑하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성인으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나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며, 인생을 가르쳐주고 본보기가 되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보호자로서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고, 동일체로 느껴지며 부양의 책임감을 주는 '밀착과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한국 특유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이라 여기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이종각, 2003; 최인재, 2006). 이렇게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자녀는 죄송함이나 고마움과 같은 정서를 느끼며 효도하고 보답하고 싶은 행동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이운기, 2005; 이장주, 최상진, 2003). 본 연구의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의 문항 내용을 보면, 부모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싶고 걱정을 끼치거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의미 중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의미는 이러한 자녀의 보답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에게 부모가 자신을 성인으로서 인정

해주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시기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자녀는 성인으로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부모가 자신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김동직, 1999; Cushman, 1990). 청년 자녀는 성인의 역할로 변화하기를 원하며, 이 변화에 따라 부모도 자녀를 보호하고 돌봄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규준적으로 변화해야만 한다(Chang & Greenberger, 2012).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환기의 중년 부모와 청년 자녀가 서로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나타났다(Holmbeck & Wandrei, 1993;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Schultheiss & Blustein, 1994a, 1994b). 대학생 자녀가 성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으로서 부모에 대한 의미를 가지려면, 부모가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에게 부모는 존경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2003)의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로서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며, 성실하며 모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본보기이자 롤모델로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닌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지가 되고, 도와주며, 보호해주고, 충고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미도 지닌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다(허재경, 김유숙,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대학생에게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임을 보여준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의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뜻한다(성영혜, 1993).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정보, 조언, 충고 등을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Cohen & Hoberman, 1983). 즉 대학생에게 부모는 격려를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자인 동시에, 위기 상황의 조언을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은 부모를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대학생 자녀가 개별적인 성인으로서 인정받길 원하면서도, 부모를 자신과 하나인 동일시의 대상이라고 느끼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자녀의 자율성의 획득과 부모와의 관계성의 유지가 동시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장휘숙, 2002; Brack, Gay, & Matheny, 1993; Kim, Butzel, & Ryan, 1998). Kagitcibasi(1996, 2005, 2012)가 제안한 가족 모델은 중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의 균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Kagitcibasi(1996)는 문화에 따라 가족 관계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의 강조가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자율성과 관계성 모두를 강조하는 '심리적 상호의존 가족 모델'을 주장하였다. 이 모델은 물질적 영역을 제외한 심리적 영역에서의 세대 간 상호의존성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전형적으로 도시화된 관계성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Kagitcibasi, 2005). 심리적 상호의존 가족은 개인 간 거리감이 적고 유대가 긴밀하지만 개인의 행동적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Kagitcibasi, 2013).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성인으로서 자녀를 인정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것은, Kagitcibasi

(1996)의 심리적 상호의존 가족 모델에서 제공하는 자율성과 관계성의 균형을 시사한다. 한국 청년 자녀에게 부모는 심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인 동시에, 자신의 자율성과 성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다.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 하위 요인들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의미 하위 요인들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2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추가되었고, 3단계에서는 부모의 의미 요인 1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추가되어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의 부모의 의미가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경할 수 있는 지지자'이, 2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이 추가되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에 관해서는 부모의 의미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2단계에서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추가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에 대해 1단계에서는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2단계에서는 부모의 의미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추가되었다.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 모두에 대해 부모의 의미 요인 4개 중 요인 2개만이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의미 요인 4개 중 요인 2 '성인으로 인정하는 대상'과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자녀의 행복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들 중 특히 '존경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나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부모의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도 높이며, 동시에 우울을 낮추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고(김지연, 오경자, 2011;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Silverthorn, & Gekoski, 1995), 부모를 존중하며(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부모에게서 지지를 받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과(고영남, 2014)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런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년 부모는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지지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존경할 수 있는 삶의 모델의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모의 태도 변화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미 중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및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의 의미를 더 증가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높일 뿐 아니라 더 행복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행동이나 양육태도 등이 자녀의 행복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관되게 증명되어 왔다(류민영, 정현숙, 2015; Shaw,

Krause, Chatter, Connell & Ingersoll-Dayton, 2004). 많은 연구들은 부모에 대한 자녀 효과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수동적인 역할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자녀 개인의 행복과 부모와의 관계 만족에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자녀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과 관계 만족이 변화할 수 있기에 자녀의 능동성을 시사해준다. 대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데에는 의미부여(meaning making)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미 부여란 삶의 여러 경험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동적 과정이다(Baumeister & Vohs, 2002). 일반적으로 의미 부여는 심각한 질병이나 외상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그 이점을 증명해왔다. 글쓰기나 말하기를 통해 외상 사건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즉 의미부여를 하도록 하면, 면역기능이 증가되고 실제 신체적 질병이 감소하며, 우울감이 감소하고, 대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이 향상되거나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s, Nolen-Hoeksema, & Lason, 1998; Esterling, L'Abate, Murray, & Pennebaker, 1999; Pennebaker, Colder, & Sharp, 1990; Spera, Buhrfeind, & Pennebaker, 1994). 이는 객관적 경험에 대해 어떤 주관적인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긍정적인 의미 부여는 경험을 이해하게 도와주고,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며, 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게 해준다

(Davis, Nolen-Hoekseman, & Larson, 1998).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 뿐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도 동시에 일어난다(Krause, 2005; Umberson, Crosnoe, & Reczek, 2010; Ward, 2008). 그러나 부정적 상호작용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하는 과정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의미를 생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대학생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추며, 부모와의 관계 만족을 높이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전환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의미가 개인의 관계 만족과 행복 및 적응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부모의 의미 증진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긍정적 의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능동적 의미 부여 및 부모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부모 또한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며 인생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야함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를 연구하였지만 유아동기, 중년기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생애주기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부모의 의미 뿐 아니라 자녀의 의미 등 다른 가족관계의 의미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남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제연구**, 27, 27-52.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김혜은,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 김혜원 (2013). 모녀간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와 여대생의 자기분화, 세대 간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3-43.
- 류민영, 정현숙 (2015).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감 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4), 21-43.
- 박광희 (2008). 대학생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38(6), 779-788.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자기 개념과 가족 역할 인식의 토착 심리 탐구**. 서울: 교육 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

- 의 부모에 대한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127-164.
- 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보건복지백서.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성영혜 (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상미, 방희정 (2013). 남녀 대학생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69-190.
- 오영진, 박봉순 (2011). 대학생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대인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10), 81-90.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이운기 (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장주, 최상진 (2003).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87-104.
- 이종각 (2003). **교육열 올바로 보기: 그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서울: 원미사.
- 이지연, 임성문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969-984.
-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079-1100.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조윤주 (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모 부양 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경선, 황현주 (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효학연구**, 20, 159-190.
-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213-237.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994(1), 65-82.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 허만세, 박병선, 배성우 (2015). 한국어판 축약형 CES-D 척도의 측정불변성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2), 313-339.
- 허재경, 김유숙 (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83-495.
- Allen, S. F., & Stoltenberg, C. D. (1995). Psychological separation of olde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rom their parents: An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5), 542-542.

- Amato, P. R. (1994). Father-child relations, mother-child relations, and offspr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1031-1042.
- Arshat, Z. (2013). Adolescents and parental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 relation to Malay adolescent emotional and behavioural adjust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18), 163-168.
- Barrett, A. E., & Turner, R. J. (2005). Family structure and mental health: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 and soci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2), 156-169.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08-61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gardner, S. & Crothers, M. (2009). *Positive Psycholog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 Birditt, K. S., Fingerman, K. L., Lefkowitz, E. S., & Dush, C. M. K. (2008). Parents perceived as peers: Filial maturity in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5*(1), 1-12.
- Bornstein, M. H., & Cheah, C. S. (2006). The place of "culture and parenting" in the ecological contextual perspective on developmental science. In K. H. Rubin, & O. B. Chung (Eds.),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3-33), Hove, UK: Psychology Press.
- Brack, G., Gay, M. F., Matheny, K. B. (1993).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d coping resources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3), 212 - 215.
- Chang, E. S., & Greenberger, E. (2012). Parenting satisfaction at midlife among European-and Chinese-American mothers with a college-enrolled child.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4), 263-27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¹.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oney, T. M. (1997). Parent - child relations across adulthood. IN D. Steve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2nd ed.), (pp. 451-46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Costello, A. B. (2009).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an-Pacific Management Review, 12*(2), 131-146.
- Cushman, P. (1990). Wh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5*(5), 599-611.
-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 (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benefiting from the experience: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61-57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 71-75.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Co.
- Esterling, B. A., L'Abate, L., Murray, E. J., & Pennebaker, J. W. (1999). Empirical foundations for writing in prevention and psychotherapy: Ment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1), 79-96.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 Fosco, G. M., Caruthers, A. S., & Dishion, T. J. (2012). A six-year predictive test of adolescent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effortful control pathways to emerging adult social and emotional healt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4), 565.
- Goldstein, M., & Heaven, P. C. (2000). Perceptions of the family, delinquency, and emotional adjustment among you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6), 1169-1178.
- Guerrero, L. K. (2008). Attachment theory: A communication perspective. In D. O. Braithwaite & L. Baxter (Eds.), *Engaging Theory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p. 295-307). Thousand Oaks, CA: Sage.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 Holmbeck, G. N., & Wandrei, M. L. (1993). Individual and relational predictors of adjustment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1), 73-78.
- Kâğıtçıbaşı, Ç. (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A view from the other side*. Hove, UK: Psychology Press.
- Kâğıtçıbaşı, Ç. (200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03-422.
- Kâğıtçıbaşı, Ç. (2013). *Family, Self,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Kim, Y., Butzel, J. S., & Ryan, R. M. (1998). *Interdependence and well-being: A function of culture and relatedness need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Saratoga Springs.
- Kocayoruk, E. (2012). The perception of parents and well-being of adolescents: Link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Praxi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46*, 3624-3628.
- Krause, N. (2005). Exploring age differences in the stress-buffering function of social support. *Psychology and Aging, 20*(4), 714.
- La Valley, A. G., & Guerrero, L. K. (2012). Perceptions of Conflict Behavior and Relational Satisfaction in Adult Parent - Child Relationships A Dyadic Analysis From an Attachment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39*(1), 48-78.
- Love, K. M., & Murdock, T. B. (2004). Attachment to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 examination of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in intact families and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600-608.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attanah, J. F., Lopez, F. G., & Govern, J. M. (2011). The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bonds to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4), 565-596.
- Montemayo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6), 1512-1519.
- Noack, P., & Buhl, H. M. (2004).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F. R. Lang, & K. L. Fingerman (Eds.), *Growing together: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pp. 45-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ller, P. and Callan, V. (1991). *The Adolescent in the Family*. London: Routledge.
- Parke, R. D. (1988). Families in life-span perspective: A multi-level developmental approach. In E. M. Hertherington, R. M. Lerner, & M. Perlmutter (Eds.), *Child development in life-span perspective* (pp. 159-19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Parke, R. D., & Ladd, G. W. (2016).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New York: Routledge.
- Pennebaker, J. W., Colder, M., & Sharp, L. K. (1990). Accelerating the coping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3), 528-537.
- Petts, R. J. (2014). Family, religious attendance, and trajectori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yout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6), 759-768.
- Rutter, M. (1989). Isle of Wight revisited: Twenty-five years of child psychiatric epidemi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8*(5), 633-65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ultheiss, D., & Blustein, D. (1994a).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2), 159-166.
- Schultheiss, D., & Blustein, D. (1994b).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2), 248-255.
- Seiffge-Krenke, I. (2006). Coping with relationship stressors: The impact of different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links to adapt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24-38.
- Silverthorn, N. A., & Gekoski, W. L. (1995). Social desirability effects on measure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2), 244-251.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 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 563-580.
- Spera, S. P., Buhrfeind, E. D., & Pennebaker, J. W. (1994). Expressive writing and coping with job lo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722-733.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 Umberson, D. (1992).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social control of health behavior. *Social Science & Medicine*, 34(8), 907-917.
- Umberson, D., Crosnoe, R., & Reczek, C. (2010).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behavior across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139-157.
- Ward, R. A. (2008). Multiple parent-adult child relations and well-being in middle and later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4), 239-247.
- Windle, M.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30.
- 1차원고접수 : 2017.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7. 02. 17.
최종게재결정 : 2017. 02. 24.

The Relations between Meaning of Parents,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Happiness and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Seol-ae, Jo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parents and effects of meaning of parents on satisfaction of relationships, happiness and adapta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s. Forty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parents were selected by a pre-study in 141 college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main study in which participants were 327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4 factors in meanings of parents: factor 1 "the ones who they love and do not want to disappoint", factor 2 "the ones who recognize them as an adult", factor 3 "the ones who support them and can be respected", and factor 4 "the ones who they want to attach to and need to support".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meaning of parents on satisfaction of relationships,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ing of parents, especially factor 2 and 3 affected satisfaction of relationships, happiness, and adaptation positively.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meaning of par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satisfaction of relationships, happiness and adaptation. Intervention that enhance the meaning of parents will increase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adaptation, and happiness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meaning of parents,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satisfaction of relationships, college students*